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14학번 이경돈입니다. 현재 포스코에 입사하여 연수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에 뛰어들 후배님들을 위해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법이니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1. 학교생활

저는 대학에 오기 전에 사실 공부에 흥미를 붙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태권도를 하며 그와 관련된 직업이 저의 장래희망이었고,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유가 있어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죽기 살기로 노력하여 여기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14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소재공학부가 정확히 어떠한 것을 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전혀 모르고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취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들으며 이해를 하면서 끄덕이는 모습에 꽤나 충격을 먹었고, 남들에게 지는 것이 싫어서 시험 전 3주라는 기간을 정해 등교해서 저녁 10시 30분 통학버스를 탈 때까지 거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부 습관 덕분에 1학년 성적을 나쁘지 않게 받은 것 같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에 교직이수도 하고 싶었고,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역하고 복학을 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하루하루가 도전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굳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역할 때 가지고 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고 노력하는 친구들과 좋은 것, 즐거운 것을 함께 즐기는 친구들 덕분에 힘든 하루를 '그렇게 힘든 하루가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저의 성적과 성격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3학년이 되고 이제 슬슬 취업을 할지 대학원에 진학할지 정해야하는 시기가 되었고, 사실 저는 2학년 말이 되면서 취업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스펙준비와 대외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뿐, 정작 3학년이 되고 더 바빠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공공부도 더 심화되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할지 몰라 갈피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공공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취업준비는 생각에서 거의 지워진 상태로 3학년은 학점유지에 온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3학년 2학기에는 처음으로 하게 된 대외활동인 스틸챌린지와 학교 시험이 겹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힘들었던 동시에 대외활동이 저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이를 통해 철강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이 지나고 저는 쉬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방학 동안에는 취업을 위한 정보수집만 하고 실질적인 준비는 하지 않은 채 방학을 보냈습니다.

4학년이 시작되고 1학기는 이미 졸업한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여러 회사 중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을 선정하여 미리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때 저는 그래도 가려면 최고의 기업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여 포스코를 선정하였고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바라는 최저 스펙은 토익이 아닌 토익스피킹이어서 하던 토익을 그만두고 토스를 준비하여 1학기동안 Lv.6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취업 컨설팅을 받고자 컨설턴트 선생님을 만났고, 제가 미리 준비한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으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방학동안 우연히 작년 스틸챌린지를 통해 한국철강협회 담당자에게서 철강취업캠프를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참가를 결정했고 대전에서 열리는 철강캠프에 1박2일간 참가하여 또 첨삭과 면접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19년,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총 6개의 회사에 지원하여, 4개의 서류합격과 2개의 서류탈락을 받았고,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현재의 회사만 합격하여 만족스럽게 입사를 하였습니다.

2.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① 성적 : 성적은 서류전형을 준비하며 스펙과 동시에 기업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성적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4년이라는 기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했는지, 전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기에 성적유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팁으로는 각자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고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② 스펙(수상내역, 어학) : 저는 철강캠프에 가서 느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원들이 각자 스펙을 이야기하는데 전국 캡스톤디자인 대상, 해외 유학, 인턴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많이 했더군요. 그에 비하면 저는 그 때 시점에 스틸챌린지는 입상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기에 토익스피킹 Lv.6라는 단 하나의 스펙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에 지원을 할 때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펙이 높으면 혹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스펙 쌓기에 급급하여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면접에 가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화려한 스펙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펙이 여러분의 성실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성적이 오히려 더 성실함을 보여주기에 좋은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학은 당장 현재에는 Lv.6 정도만 따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미래를 위해 계속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③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건데, 처음 쓰기 시작하면 엄청 막막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기란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많이 써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을 자주 이용하라고 말해줍니다. 저도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같은 자기소개서를 원서 접수기간동안 4번에서 5번 정도 첨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쓸 때, 완벽

한 자기소개서를 쓰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만한 곳은 충분히 많으니 자소서를 일단 쓰고 보라고 당부하고 꼭 혼자 쓰겠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쓰면 잘못된 점을 알아내기가 힘들고 쓰면 쓸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자신에 대한 글을 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쓰다보면 가끔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꾸며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면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④ 면접 : 저는 가장 후회하는 게 면접 스티디를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4개의 서류전형 통과 회사 중 3개의 회사에 면접을 갔습니다. 그 중 2개는 탈락하였고 지금의 회사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면접이 연습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예상 질문을 잘 준비해서 가더라도 면접관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게 되면 합격하게 될 확률은 희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2학년 때부터 발표수업 때 발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2개의 회사의 면접에서는 말도 더듬고, 시선처리까지 불안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면접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주변의 친구들이 '너 아니면 여기 합격할 사람이 없다, 이번엔 느낌이 좋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정말 이 회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같이 면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한층 차분해졌고 나올 때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면접은 확실히 긴장감이 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자기소개서에 적혀진 글이 거짓이라면 분명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내가 했던 일을 정확하게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하고 싶은 말

저는 일단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결과에 관계없이 도전하라!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주위사람들에게 취업공고가 떴을 때마다 알려주며 같이 취업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님들 저는 준비가 되어서 취업에 뛰어들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많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원해서 떨어지면서 얻어가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취업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탈락을 거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도 빠진다는 것을 저도 겪어봤기에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았기에 당당히 탈락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탈락을 통해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했었는지 파악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서 고쳐나가 결국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도전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친구들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저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 저의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었고 학교생활에 치이고 살 때 친구들과 공차거나 먹거나 놀 때 가장 많이 힐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업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바쁠 것이라 생

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010-4907-5169로 연락주시면 시간이 될 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으로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으니 모두 위생과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취업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한 것 같아 사과의 말씀드리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